

국정 운영 변화 촉각...광주시 민생토론회 곧 진행할 듯

윤 정부 2주년 국민보고·회견

경북·전북·광주·제주

민생토론회 다음주부터 시작 예고

윤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면서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이 변화될지 주목된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등 그동안 불거진 가족 문제와 국정 현안에 대해 '속내'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 등 각종 특검과 의대 정원 등 의료개혁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은데다, 국정 기조도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사과'를 빼고는 국민공감이 미흡했다는 혹평이 지배적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다른 현안들을 놓고 국민에게 사과하거나 유감을 표명했지만 '사과'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었다. 이전까지는 '부족' '송구' '죄송' 등의 표현을 썼었다. 부인과 관련된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내고 진정성을 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총선 패배와 지지율 하락에 따라 직접적인 사과의 방식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달 1일 의정 갈등 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는 "늘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고, 지난해 11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후 발표한 담화에서는 "국민 여러분에게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 모든 것은 제 부족함"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KBS와의 특별 대담에서는 김 여사의 의혹과 관련해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 (상대를)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이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좀처럼 사과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는 윤 대통령을 향해 야권을 중심으로 '정말 사과의 진정성이 있느냐'는 비난이 제기됐던 게 사실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해 "그간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논리적인 대응을 하셨지만, 대통령의 아내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렸으니 그것에 대해서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연기됐던 광주시와의 민생토론회도 진행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민생토론회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며 "경북·전북·광주·제주는 아직 못 갔는데 곧 내 군데도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이다"면서 "민생토론회를 준비하려면 여러 현안과 지역의 희망 사항, 또 이것이 현실화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 상당 부분 검토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24번의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244개의 과제를 전부 점검했고,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점검하고 있다"며 "절대 빈말이 되는 민생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의대정원에 대한 입장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과 관련해선 "자유민주주의적 설득의 방식에 따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과도한 부동산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전가가 이뤄진다"며 "있는 사람에게 더 걸겠다는 당초의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與 “진솔한 입장 말해”...野 “자화자찬으로 채워”

尹회견에 상반된 평가
'김여사 특검 정치공세' 입장
與 “엄정수사의 뜻이다”
野 “불가침 성역 재확인”

여야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여당은 솔직한 자세로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펼치겠다는 겸허한 회견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불통의 모습에 국민이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2년간의 정책 과정과 성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했다"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며, 질책과 꾸짖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기겠다는 다짐도 있었다"고 평했다.

이어 "국민 삶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국민 뜻에 따라 국정을 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개혁 입법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도 거듭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질의응답에서는 국민께서 궁금해할 모든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면서 "입장차가 있는 여러 특검 등의 사안을 두고는 특검의 본질과 취지를 강조하며 진상을 밝히기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와 함께 협조의 뜻을 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일하겠다"고 말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회견이 "자화자찬으로 채워졌다"고 혹평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회견 종료 직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은 찾을 수 없었다. 언제까지 고집불통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이 절망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특히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를 '정치 공세'로 규정할 것을 두고 '김 여사가 불가침의 성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순직한 해병대원에 대한 특검법조사 이미 수개월째 제자리걸음인 수사기관의 수사를 믿고 지켜보자는 말로 국민을 허탈하게 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오늘 회견은 국정 기초 쇄신을 바랐던 국민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렸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대로, 국민을 의면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바로잡아가는 길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2년 국정운영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잘할 것 같다는 확신을 얻은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혹평했다.

윤 대통령이 밝힌 '저출생대응기획' 신설 구상에 대해서도 "젊은 세대가 미래 걱정 없이 마음껏 사랑하고 일할 수 있는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여성가족부 뒷받침이 안달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개혁신당 주이삭 대변인은 "민생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보고한 그 취지는 평가하지만, 내용의 대부분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이라고 논평했다.

주 대변인은 "의대 증원, 채상병 특검 등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도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여전히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며 "더 이상 기대가 어려워 보인다"고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 대구 3선 추경호

“거대 야당에 당당히 맞서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3선인 추경호(사진·대구 달성) 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총선 당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 원내대표 경선을 가졌다. 경선 결과, 추 의원은 당선자 102명의 과반인 70명의 지지를 얻어 신임 원내대표가 됐다.

경선에 나섰던 이종배(충북 충주)·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은 각각 21표와 11표를 얻는데 그쳤다.

추 원내대표는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 '친윤'(친윤석열)으로 분류되지만 계파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에서는 당 전략기획부총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주요 당직을 맡았다.

추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 일선으로 "민생 정당,



정책정당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고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강조했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거대 야당을 상대로 국회 원 구성 협상과 채상병 특검법 등 당면 현안에 대응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황우여 비대위'에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참여하며 4·10 총선 참패 이후의 당 수습에도 앞장서야 한다.

그가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로 선출된 것은 당선인의 과반(59명)을 차지하는 영남권 및 초선(44명) 당선인들이 지지를 쏟아 준 결과로 풀이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의결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